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20. 낮 11~12	장소	관동, 한터들
날씨	맑음 (31°C)	참여자	
경관	폭염으로 지쳐있던 논밭이 많은 비로 파릇해지고 공기도 상쾌하고 싱그럽다. 수로마다 물이 한가득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죽은 소나무들은 부러져서 쓰러져있다.		
식물	며칠의 폭우후 모종을 정식한 콩, 들깨가 쑤욱 자라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폭염의 날씨로 벼가 뿌리를 못내려 횡한 논이 많았는데 이번 비로 벼가 어느정도 어울려가고 있다.		
새	쇠백로 6마리, 왜가리 5마리가 보인다. 따오기도 6월보다는 줄었지만 자주 보이는 편이다. 청둥오리가 6월에 두둑에 알 8개를 낳아 품고 있다. 벼이삭, 풀등을 뜯어 등지를 보수하며 키워내고 있다. 알의 크기는 계란크기만하다. 동료오리들이 고생한다고 응원해주고 간다. 오리가 외출할때는 이것저것 끌어모아 덮어놓고 간다. 신기하다.		
기타	토평천 수변생태밸트는 습지와 그 주변을 짜 다 제초작업을 해서 시원하다.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 15 . 06:00	장소	모곡제방
날씨	흐리고 비	참여자	
경관	<p>긴 가뭄 끝에 늦은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늦과 식물 그리고 운무가 적당히 있어 그야말로 천연 생태계의 모습이 장관이다.</p>		
식물	<p>수생식물이 늦을 뒤덮었다. 왕버들, 마름, 기타 식물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농부들의 생업인 벼들도 잘 자라고 있다.</p>		
새	<p>새들의 먹이활동 장소가 마름등으로 뒤덮여있다. 뼈꾸기 소리가 들리고 왜가리가 한 마리 보인다.</p>		
기타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07. 13. 15:00 (일요일)	장소	대학저수지
날씨	맑음 (32도)	참여자	
경관	<p>기온이 많이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숲은 진한 색으로 우거지고 있다. 벼 심은 논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든다.</p>		
식물	<p>저수지 주변에 잡초들은 심고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란다. 연꽃이 만발하여 저수지를 빛낸다. 갈대들도 물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p>		
새	<p>저수지 옆 벼 심은 논에 물오리들이 때를 지어 놀고 있다. 가까이서 보기는 오래만이라 많이 반가웠다. 날이 더워서인지 따오기가 요즈음은 뜻하다.</p>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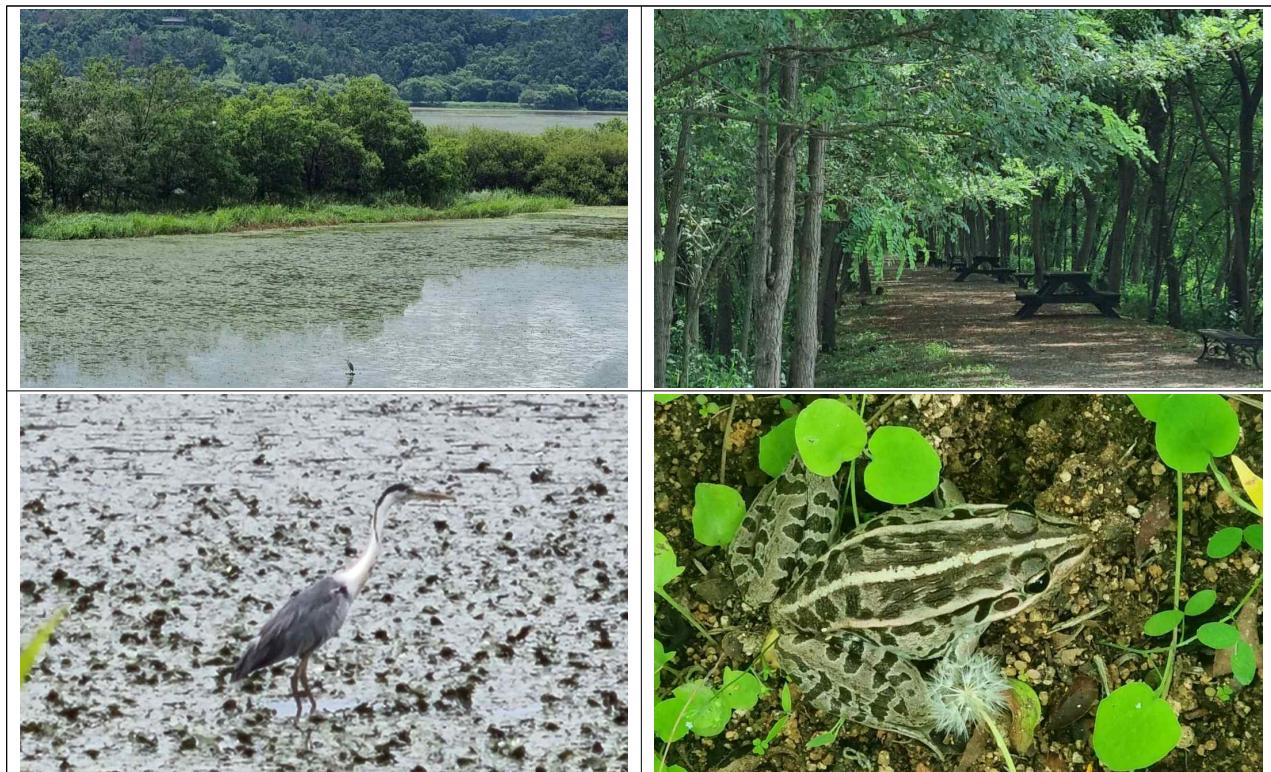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8. 오후 5시	장소	사지포 제방
날씨	맑음 (33°C)	참여자	
경관	<p>계속 비는 안 오고 폭염이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사지포에는 연이 무성하고 꽃도 피었습니다. 아침에는 여름철새들이 시끌시끌 하던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비는 안 오지만 나무들은 잘 자라고 바닥에 풀은 마르고 있습니다.</p>		
식물	<p>이태리포풀러는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어 다시 바닥에 솜뭉치가 굴러 다닙니다. 나무밑 언덕에는 개망초가 큰 군락으로 있으나 가뭄으로 꽃은 시들합니다. 붉은토끼풀과 애기똥풀은 꽃이 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접시꽃이가 날아 왔는지 한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p>		
새	<p>사지포에는 연이 덮혀 새들은 보이질 않고 여름 작은새들은 조금 보입니다. 대대벌판에는 백로와 왜가리들이 논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새로 태어난 따오기도 어미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p>		
기타	대대벌판에서 따오기가족 발견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16. 오전 9시	장소	장재마을 앞 목포늪
날씨	흐리고 비 (28°C)	참여자	
경관	왕버들 군락지 나무들이 계속 내리는 비로 수위가 높아져 물에 많이 잠김. 늪 주변 산의 소나무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		
식물	늪 전체에 마름, 개구리밥등이 뒤덮고 있다. 작년 7월에는 자라풀이 많았는데 올해는 잘 확인이 안된다.		
새	왜가리 한 마리, 작년에 비해 적게 보인다.		
기타	해가 가면 갈수록 겨울, 여름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 15 . 11:00~	장소	우만, 주매 제방
날씨	맑음 (27° C)	참여자	
경관	인적이 없이 한산한 높이다 가을하늘처럼 뭉게구름만 높이 떠있다.		
식물	메꽃, 망초가 많이 눈에 띈다.		
새	늪과 하늘에 왜가리가 3마리, 흰뺨검둥오리가 7마리 보인다.		
기타	여름 잠자리와 개구리를 보았다.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7. 오후	장소	세진마을 앞
날씨	맑음 (37°C)	참여자	
경관	매일 기온이 37°C가 되어서인지 조금은 한산한 느낌이다.		
식물	회관 주위에 무궁화는 활짝 피어있다, 주의에 풀들은 무성하다		
새	왜가리등이 가끔 보이고 작은 새들은 안보인다		
기타	양파 마늘작업은 끝이나고 논에는 모가 심겨져있다. 비가 오지를 않아서인지 모든 작물이 더디게 자라고 있다.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 16 . 08:30~11:00	장소	산밖벌 복원습지
날씨	조금 흐림 (24° C)	참여자	
경관	흐린 날씨였고 바람은 선선하다. 비예보가 있고 공기가 높다.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잠자리가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복원습지는 수생식물로 표면의 90% 이상이 덮여있었다. 연꽃이 드물게 피어있다.		
식물	배롱나무의 홍자색꽃이 피어있다. 봉우리가 30% 있다. 참느릅나무의 새잎이 붉은색을 띠며 돌아나고 있다. 밝은 주황색의 원추리꽃, 밝은 보라색의 부처꽃이 피어있다.		
새	산밖벌 복원습지- 후투티3마리가 나무사이로 날아다님. 청딱다구리 1마리가 나무위에서 울고 있다. 뼈꾸기 소리가 들린다. 억새밭에서 개개비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제비 3마리가 먹이활동중이다. 큰부리큰까마귀 2마리가 펌프장 위 안테나에 앉아있다. 떼까치 암컷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토평천 하루와 옥천마을논-왜가리5, 민물가마우지6, 중대백로 2마리가 나무위에 앉아있다. 흰뺨검둥오리8, 중대백로 10마리가 빈논에서 먹이활동중이다.		
기타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12.	장소	신당마을
날씨	32 ℃	참여자	
경관	체험장 옆 밭은 귀촌한분이 2~3년 전부터 이제 보리를 거두고, 메주콩을 심기 위해 밭을 갈고 계신다.		
식물	<p>2~3년전에 맛있게 따먹던 뽕나무는 생명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벌레들에게 잠식당했다.</p> <p>조그만 벌레들이 커다란 나무를 앙상하게 만들어 버렸다.</p> <p>곡식, 과일, 야채들도 성장률이 낮아져 먹거리들의 치열한 파동이 예상된다.</p> <p>해바라기가 동네 골목을 환하게 만들어준다.</p>		
새	제비들이 예전 제비집을 보수하여 새끼를 치고 날아다니더니, 어느 틈에 옆에 다시 집을 짓고 알을 품고 있다.		
기타	<p>저녁 무렵 뜨거운 열기는 식어져 약초밭에 풀을 뽑고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름달이 보인다.</p> <p>붉은 색에 가까운 달을 보니 내일도 상당히 더울 듯 같다.</p>		



모니터링 일지			
일시	2025. 7. 23 (12:30-13:00)	장소	목포 일대
날씨	맑음. 영상 33.5도	참여자	
경관	비 온 다음이라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흔적들이 길가의 나무와 풀들에 흙으로 많이 덮여 있어며 그래도 늦은 아무렇지도 않게 풍광을 보여줌		
식물	길 가장자리에 풀들과 나무에 물에 잠겼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음. 늦에는 마름과 멀리 수생식물들이 덮여 있음.		
새	건너편에 왜가리들이 보이고 물까치와 작은새들도 보임.		
기타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징검다리는 물이 차서 흔적도 보이지 않고 통제선이 쳐져 있음.		

